

## 국제경제관리관 주재 「외환시장 간담회」 개최

-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 충격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무역수지, 환율 안정 세제 3법 안착, WGBI 등으로 외환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
- 국제경제관리관은 韓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원화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 강조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6.4.7일(화) 주요 글로벌 IB, 시중은행 등이 참석한 「외환시장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외환시장과 국제금융시장 상황 등에 대한 시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외환당국과 시장 참여자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참석 기관 :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도이치, BNP파리바,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문 관리관은 최근 중동 전쟁의 전개 양상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일선 시장 전문가들과의 소통과 외환당국의 기민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문 관리관은 금일 참가자로부터 중동 전쟁에 대한 시장 전문가의 전망과 향후 리스크 요인, 무역수지·WGBI 유입자금·외국인 주식자금 흐름 등 외환수급 상황에 대한 평가 등을 경청하였다.

참석자들은 '26년 2월중 하향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이 중동전쟁이라는 외부적 충격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최근 수출 호조에서 나타나는 우리 산업 경쟁력,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매우 견조하고, 외화유동성도 양호하기에 상황이 진정될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에 더해 문 관리관은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출시,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 증가, 국고채의 WGBI 편입 개시 및 4월중 예정된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발표 등으로 외환수급이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문 관리관은 외환수급 개선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외 불확실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높은 수준의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확실 상황에 편승하여 외환시장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 등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원화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관리관은 국제금융시장 상황 등이 급박하게 변화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시장 참가자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도 적극 청취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담당 부서	재정경제부	책임자	과 장	도종록 (044-215-4730)
	외화자금과	담당자	사무관	이태운 (lty703@korea.kr)

